

<[파이썬 수학] 제16장. 설계도에 생명을! 메소드와 생성자 마법!>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만든 'Car' 설계도와 자동차 인형을 보여주며) 애들아, 안녕! 지난 시간에 우리는 Car라는 클래스(설계도)를 만들고, `my_car = Car()` 처럼 실제 자동차(인스턴스)를 만들었지? 그리고 `my_car.color = "빨강"` 처럼 자동차의 특징(속성)도 정해줬어.

코딩새싹 🌱: 네! 그때는 자동차의 특징만 정했는데, 자동차가 '달린다'거나 '뽕뽕거린다' 같은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 '행동'이 바로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함수, 즉 **메소드(Method)**란다! 메소드는 그 설계도로 만들어진 객체(인스턴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되는 거지.

<1. 인스턴스야, 네 능력을 보여줘! - 메소드 정의하기>

선생님: 메소드를 만들 때는 `def` 키워드를 쓰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료(파라미터)로 **self**를 꼭 넣어줘야 해. 이 `self`가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의미한단다!

```
class Book:

    author = "" # 클래스 속성들 (기본값)

    title = ""

    page = 0

    # 책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

    # self는 이 메소드를 호출한 book1 인스턴스 자신이 돼!

    # local은 이 메소드가 추가로 받는 재료(파라미터)야.

    def print_book_info(self, local):

        print(f"저자: {self.author}, 제목: {self.title}, 페이지: {self.page}, 지역: {local}")

    # 간단한 인사말을 출력하는 메소드

    def print_hello(self):

        print("Hello World,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 Book 설계도로 book1 이라는 실제 책을 만들자!

book1 = Book()
```

```
book1.author = "왕새우" # book1의 속성들을 정해주고
```

```
book1.title = "파이썬 대모험"
```

```
book1.page = 300
```

```
# book1아, 너의 정보 출력 능력을 보여줘! (local 재료로 "korea"를 전달)
```

```
book1.print_book_info("korea")
```

```
# book1아, 인사 한번 해봐!
```

```
book1.print_hello()
```

궁금이 💡: self.author 처럼 self 다음에 점을 찍고 속성 이름을 쓰면, 그 메소드를 부른 인스턴스의 속성값을 가져오는 거군요! 만약 book2가 print_book_info를 불렀다면 self는 book2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정확해! self 덕분에 메소드는 “누구의” 정보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란다.

<2. 객체의 탄생 의식! __init__ 생성자 함수>

선생님: 우리가 책(인스턴스)을 만들 때마다 book1.author = "왕새우" 이렇게 하나하나 속성을 정해주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니?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표를 따로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은 ‘홍길동’, 몸무게는 3kg으로 정한다!”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순간)에 필요한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특별한 의식(메소드)이 바로 __init__ 이란다!

__init__은 '초기화(initialize)'라는 뜻이고, 앞뒤에 밑줄 두 개씩(_)이 붙은 아주 특별한 메소드야. 이것을 생성자(Constructor)라고도 불러.

```
class Book:
```

```
# 책이 만들어질 때(인스턴스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는 __init__ 메소드!
```

```
def __init__(self, author, title, pages):
```

```
# self는 새로 만들어지는 책(인스턴스) 자기 자신!
```

```
# "이 책의 작가는 재료로 받은 author 값으로 한다!"
```

```
self.author = author
```

```
self.title = title
```

```
self.pages = pages
```

```
print(f'"{self.title}" 책 한 권이 똑딱! 생성되었습니다.') # 생성 메시지!
```

```
def print_book_info(self):
    print(f"저자: {self.author}, 제목: {self.title}, 페이지: {self.pages}")
```

이제 책을 만들 때(인스턴스 생성 시) 바로 재료(아규먼트)를 넣어주면 돼!

```
book4 = Book("왕새우", "수학감각", 150) # 이 재료들이 __init__의 author, title, pages로 쏙!
book4.print_book_info()
```

코딩새싹 🌱: 와! Book("왕새우", ...) 이렇게 하니까 __init__ 함수가 알아서 실행되고, self.author 같은 속성들이 바로 정해졌어요! 훨씬 편한데요!

<3. 우리 모두의 정보 vs. 나만의 정보 (클래스 속성 vs. 인스턴스 속성)>

선생님: __init__ 안에서 self.author처럼 self.을 붙여서 만든 속성들은 각 인스턴스(각각의 책)만 가지는 '나만의 정보', 즉 **인스턴스 속성**이야. 그런데, 그 설계도(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정보도 있을 수 있어. 이것 **클래스 속성**이라고 해.

궁금이 💡: 예를 들면, 모든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같은 공통 정보요?

선생님: 그렇지! 또는, "우리 도서관에서 이 Book 설계도로 책을 몇 권이나 만들었을까?" 하는 전체 개수를 세는 정보도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 수 있어!

```
class Book:
```

```
    # 이 Book 설계도로 만들어진 모든 책들이 공유하는 정보 (클래스 속성)
```

```
    count = 0 # 처음엔 만들어진 책이 없으니 0권!
```

```
def __init__(self, author, title, pages):
```

```
    self.author = author # 이건 인스턴스 속성
```

```
    self.title = title # 이것도 인스턴스 속성
```

```
    self.pages = pages # 이것도 인스턴스 속성
```

```
    Book.count += 1 # 새 책이 한 권 만들어질 때마다, "Book 설계도의" count를 1씩 증가!
```

```
    print(f"'{self.title}' 책 생성! (총 {Book.count}권째 책)")
```

```
def print_book_info(self):
```

```
    print(f"저자: {self.author}, 제목: {self.title}, 페이지: {self.pages}")
```

```
book1 = Book("왕새우", "수학감각", 200)

print("book1을 만들고 난 후 총 책의 수:", book1.count) # 인스턴스를 통해 클래스 속성에 접근 가능!
# 또는 Book.count 로도 접근 가능! print(Book.count)
```

```
book10 = Book("이순신", "난중일기", 1000)

print("book10을 만들고 난 후 총 책의 수:", book10.count)
```

코딩새싹 🌱: Book.count += 1 이렇게 하니까 책을 만들 때마다 count가 늘어나네요! book1.count랑 book10.count가 같은 값을 보여주는 것도 신기해요!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는 거군요!

<4. 실전 연습! 멍멍이와 동그라미 만들기!>

선생님: 자, 이제 배운 걸로 귀여운 'Dog' 클래스랑 'Circle' 클래스를 만들어보자!

[멍멍이 클래스]

```
class Dog:

    species = "포유류" # 모든 강아지는 포유류 (클래스 속성)

    def __init__(self, name, breed):

        self.name = name # 이 강아지만의 이름 (인스턴스 속성)

        self.breed = breed # 이 강아지만의 품종 (인스턴스 속성)

    def dog_intro(self): # 멍멍이가 자기소개하는 능력!

        print(f"멍멍! 내 이름은 {self.name}이고, 나는 멋진 {self.breed}야! 우리는 모두 {self.species} 친구들!")

puppy = Dog("puppy", "말티즈")

puppy.dog_intro()

print(f"{puppy.name}는 {puppy.species}일까? 응!")

dog2 = Dog("베이비", "불독")

dog2.dog_intro()
```

[동그라미 클래스]

```
class Circle:
```

```
    pi = 3.14 # 모든 원은 같은 원주율을 사용 (클래스 속성)
```

```
    def __init__(self, r): # 원이 만들어질 때 반지름(r)을 받는다
```

```
        self.r = r # 이 원만의 반지름 (인스턴스 속성)
```

```
    def get_circum(self): #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능력!
```

```
        return round(self.r * 2 * Circle.pi, 2) # 인스턴스 속성(self.r)과 클래스 속성(Circle.pi)을 함께 사용!
```

```
    def get_area(self): #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능력!
```

```
        return round(self.r ** 2 * Circle.pi, 2)
```

```
c = Circle(9)
```

```
print(f"\n반지름이 {c.r}인 원의 둘레는 {c.get_circum()}이고, 넓이는 {c.get_area()}입니다.")
```

궁금이 💡: Circle.pi 처럼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하고, self.r 처럼 인스턴스 속성은 self를 통해서 접근하는군요! 그리고 메소드 안에서 이 둘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선생님: (활짝 웃으며) 바로 그거야! 오늘 우리는 클래스에 ‘행동’을 부여하는 메소드, 객체가 태어날 때 꼭 필요한 __init__ 생성자,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클래스 속성과 각자 가지는 인스턴스 속성의 차이까지 배웠어. 이제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란다! 이 정도면 파이썬 세계의 건축가라고 해도 되겠는걸? 훌륭해! 🌟